

# 구례군, 해외시장 진출 판로 개척 노력

## 미국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입점 농업회사법인 '구례삼촌' 경쟁력 검토 수출 확정

코로나19로 어려운 식품업체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수출 판로 개척을 추진하고 있는 구례군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 4월 미국의 까다로운 통관조건과 아마존의 철저한 검증을 거친 농업회사법인 '구례삼촌'의 건산물 선적을 지원하는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인터넷 종합 쇼핑몰인 아마존에 개설한 전남 브랜드관에 입점한 농업회사법인 '구례삼촌'은 미국 현지 운영사의 시장성·경쟁력 검토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수출을 확정했다.

입점 기업은 초기 마케팅 비용 50% 지원, 영양성분 분석, 입점용 이미지 촬영, 상세페이지 제작, 물류비 등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아시아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동

남아와 대만 최대의 쇼핑몰 쇼피에 김부각 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북내리는 당산나무'가 입점하여 판매를 시작했다.

군은 수출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뉴욕에 기반을 두고 한국산 프리미엄 천연 제품만을 취급하는 온라인 식품마켓인 김시마켓(Kim's Market)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입점지원사업 미국 시카고(H마트), 베트남 호치민 무역관, 중국 선양무역관·베이징무역관 등에 지역 식품업체들이 선정되어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코로나19로 지역 농·특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체들이 철저한 품질 관리와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해외 시장에 보다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6월에 개최하는 한·중도시발전연맹 비대면 온라인 수출상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며, 중동 및 몽골에도 관내 농·특산물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례=박진호 기자



## 담양군,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창립총회 참석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는 지난 12일 경남 하동군청 대회의실에서 17개 회원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창립총회를 열었다.

행정협의회는 담양군 대나무밭을 비롯해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을 보유한 17개 시·군이 농어업유산의 효율적인 보전과 가치 전승을 위해 만든 협의체로 초대 협의회장으로는 윤상기 하동군수, 부회장으로 신우철 완도군수가 선출됐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행정협의회 창립총회는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영상 상영, 창립취지 및 추진경과 설명, 협의회원 인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참여

시·군은 전남 광양시, 담양군, 구례군, 보성군, 무안군, 신안군, 안동군, 전북 부안군, 경북 상주시, 의성군, 울진군, 울릉군, 경남 하동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등이다.

이날 행정협의회에 참석한 김영신 부군수는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창립총회를 축하하며, 농어업 유산이 지속적으로 보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 대나무밭은 2014년 6월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제4호로 지정되었으며 2020년 6월 세계중요농어업유산 제51호로 등재되었다.

담양=박종영 기자

## 화순군,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캠페인

### 화순읍 고인돌 전통시장 정문서 화순경찰·녹색어머니회와 홍보

화순군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는 '안전속도 5030' 정착 등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군은 13일 화순읍 고인돌 전통시장 정문에서 화순경찰서,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안전속도 5030 시행 등을 홍보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 지역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낮추는 정책이다. 지난달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고 있다. 제한 속도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속도에 따라 4만 원에서 최고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고 속도보다 80km를 초과하면,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

화순군은 화순읍내, 화순읍 세량리, 능주면, 춘양면, 이양면, 동북면, 사평면, 화순일반산업단지를 안전속도 5030 시행 구간으로 지정하고 교통 표지판 174개와 노면 표시 등 419개 등을 설치했다. 현수막 등 홍보



보물을 제작해 안전속도 5030 시행을 홍보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에 동참해 교통사고로부터 인명 피

해를 줄이고 선진 교통 문화 정착에 군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 장성군, 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추진

장성군 진원면의 주민 생활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총 사업비 40억원 규모(국비 28억원 포함)의 '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장성군은 12일, 진원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사업 시작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사업 기간(5년) 동안 진원면 일대에 생활공유센터, 공유주차장, 건강생활공원, 보행자 안전거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민 참여형 상향식 공모사업인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장성 진원면이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을 확정지었다. 진

원면은 지난해 3월부터 지역민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현장 포럼과 예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철저하게 공모사업을 준비했다.

면 소재지 생활 편의 및 문화·복지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사업의 취지다. 장성군은 진원면을 포함해 총 3개소(남면, 북면)에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성군은 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지역 내 3개소(장성읍, 동화면, 황룡면)에서 추진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 곡성군,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추진으로 석곡면 상인 역량 강화

곡성군은 지난해 행안부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에 선정된 '석곡 한들한들 피어나 뉴트로 1973 사업'의 일환으로 석곡면 상인을 대상으로 바르게 걷기와 맞춤형 컨설팅을 지난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바르게 걷기는 6월 22일까지 석곡 대항강 자연휴식공간에서 주 2회 진행되고 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일대일 매칭으로 진행되며, 대항강변 5km를 걸으며 바른 자세 교육과 연습을 통해 심신을 회복하고 면역력을 증진하고 있다.

상인 맞춤형 컨설팅의 경우, 집합교

육이 아닌 전문가가 점포를 직접 찾아가 경영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현재까지 17개소가 신청하였으며, 1개 점포당 3회 방문하여 경영운영 전반, 스토리텔링, VMD, 메뉴판 제작, 세무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실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중이다.

군 관계자는 "체력증진과 컨설팅을 통해 석곡 상인들이 활력을 찾고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곡성=양혜영 기자



## 나주시, 초보 귀농인 '영농기초기술교육' 성황

나주시는 농촌에서 새 삶을 꿈꾸는 초보 귀농·귀촌인을 위한 '영농기초기술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안정적인 귀농정착을 위한 귀농입문반 형태로 4월 27일 개강해 이달 11일까지 총 3회(12시간)에 걸쳐 교육신청자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나주시 귀농·귀촌 관련 지원정책 및 정책자금, 농촌 소득원

찾기, 나주 역사·문화 바로알기, 갈등 관리 요령 등 이번 교육을 토대로 성공적인 농촌살이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시는 농업소득 증대,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차후 교육으로 영농기초기술교육 '영농준비반', 영농창업교육 2개 과정(창업준비·창업실행)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